

# VR·드론...4차 산업 연구 한자리서 해결

광주대 '판타지 랩' 개소  
광주정보문화진흥원과 협력  
실습 위주 교육 인재 양성  
친환경차·콘텐츠 개발 지원

광주지역 대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양성을 위해 인문학과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는 18일 학교 호심관에서 4차 산업 교육 및 연구 시설인 판타지 랩(Fantasy Lab) 개소식을 열었다.

판타지 랩은 4차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 설비를 갖춘 전문 교육 센터다.

판타지 랩은 광주정보문화진흥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예술·문화·첨단공학(ART·CULTURE& TECHNOLOGY) 융합을 목표로 설립했다. 이 공간에서는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드론, CG, 3D프린팅과 스캐닝,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기술 집약적,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한다.

판타지 랩의 특징은 학과 중심의 기존 교육 경계를 뛰어넘어 인문학과 상상력, 첨단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미디어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데 있다. 판타지 랩은 미디어 아트와 공학, 교육을 통합한 오스트리아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센터와 독일 미디어아트센터 ZKM의 시스템을 모델로 하고 있다.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센터는 광주에 있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벤치마킹한 세계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학교 호심관 3층 500여㎡ 규모로 조성



광주대학교가 최근 개관한 4차 산업 교육 및 연구 전문시설 판타지 랩(Fantasy Lab) 가상현실(VR) 실습실에서 학생들이 VR기기 체험을 하고 있다.

된 판타지 랩은 ▲VR·홀로그래프 실습체험실 ▲드론 실습실 ▲3D 프린팅·3D 스캐닝실 ▲컴퓨터·CG 교육실 ▲학술 연구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도 제작과 3D모델링, 건축용 투시도 제작에 활용되는 산업용 드론과 VR 제작이 가능한 영상 드론 등 대학은 물론이고 기업에서도 찾기 힘든 첨단 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 VR·홀로그래프 시연 장비를 통해 학

생과 교육생들이 제작한 실습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에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광주대는 판타지 랩을 통해 광주시가 제시하고 있는 3대 미래전략산업 중 친환경 자동차 산업 및 문화융합콘텐츠 산업에서 활동할 우수한 창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판타지 랩 개소식에서 광주가 상현실(VR)협동조합, 광주장작콘텐츠산

업협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과 산학 취업연계 및 상호 교류, 교육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김혁중 광주대 총장은 "지역의 4차 산업 연구,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판타지 랩을 조성하게 됐다"면서 "판타지 랩을 통해 4차 산업 인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놀면서 배우는 과학 '광주과학문화축전'

21~22일 광주과학관  
112개 체험부스 마련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21일, 22일 양일간 '2017 광주과학문화축전'을 개최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6개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꿈이 시작되는 과학문화!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학생은 물론 시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과학문화 축전은 21일 오전 10시 개막식을 연다.

이번 개막식에는 뮤직 그룹 'KATA'의 퓨전국악공연과 아카펠라 등의 공연이 함께 진행된다.

과학문화축전 기간 중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과학체험마당 ▲과학놀이마당 ▲더불어탐구마당 ▲전시마당 ▲공연마당 ▲특별행사의 6개 영역에서 진행된다.

각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일상속의 과학을 다른 각도에서 체험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또 문화행사, 인문학 콘텐츠를 통해 융합적 사고를 키우는 자리도 마련했다. 과학체험마당에서는 물리, 화학, 지구과학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총 112개

부스에서 참가자들이 과학 원리를 직접 체험하고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과학놀이마당에서는 STEAM 과학 놀이, 기초과학놀이 등 4개 영역에서 12개의 놀이마당이 펼쳐진다. 과학놀이마당은 학생들이 과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전예약으로 운영되는 더불어탐구마당에서는 학생들이 함께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팀을 이뤄 과제를 수행하고 타 팀과 경쟁하는 더불어탐구마당은 문제해결능력과 협동심을 키우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마당에서는 전자현미경 사진전과 현미경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공연과 뇌과학 속의 인문학(나홍식 고려대 의대교수), '과학마술로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준형 마술사)을 주제로 한 2차례의 강연이 준비돼 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축전이 진행되는 21일과 22일 이틀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설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과학문화축전 홈페이지(gise.gen.go.kr/science)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960-6172.

/전은제기자 ej6621@kwangju.co.kr

# 과학기술관 7곳 수장 무더기 공백 이유는?

기관 총괄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석달재 임명 지연 탓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이하 연구회)가 석달재 '수장 공백'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열리는 국정감사도 이사장이 공식인 상황에서 진행하게 됐다.

학생연구회 권익 보호,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마련 등 출연연 관련 과제가 산적했지만, 정작 이를 맡아 해결할 이사장이 없어 정책의 정상적인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이사장이 없는 상태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러한 공백으로 인해 연구회 대상 국정감사에는 문길주 선임이사 등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31일 이상천 초대 이사장이 사임한 뒤 연구회는 지금까지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차기 이사장 선임에 대해 연구회는 지난 1월 1일까지 과학기술 유관단체 등에서 이사장 후보자 추천을 받았다. 총 18명이 추천자 명단에 올랐고 연구회 이사

장추천위원회는 1주일 만에 원광연·유진 카이스트 명예교수, 유희열 부산대 석좌교수 등 3명을 최종 후보로 추렸다.

유영민 장관이 이 가운데 적임자를 대통령에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지만 한 달째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에초 과학기술계에서는 추석 연휴 전에 임명이 진행돼, 선임 이사장이 국정감사를 맡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출연연을 총괄하는 자리니, 그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출연연 기관장의 임명권을 가진 연구회 이사장의 임명이 지연은 소관 기관의 수장 공백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구회 소관 출연연 25곳 중 기관장이 없는 곳은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7곳이나 된다.

이들 기관에서는 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부원장이나 선임연구소장 등이 19일 국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중장년 겨냥...SKT '폴더형 스마트폰' 판매

SK텔레콤은 폴더형 스마트폰 '스마트폴더'(모델명 LGM-X100S·사진)를 공식 인증 대리점과 온라인몰 T월드 다이렉트를 통해 지난 17일부터 단독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제조한 이 제품의 출고가는 29만7000원이며, 공식 지원금은 밴드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12만~17만3000원이 책정됐다.

색상은 블루, 화이트 2종이다. 폴더형 스마트폰은 물리 키패드와 터치 디스플레이를 함께 갖춘 제품으로, 물리 버튼에 익숙한 중장년층에 선호도가 높다.

T월드 다이렉트에 따르면 폴더형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 중 74%가 60대 이상이다.



이 제품은 중장년 고객을 위해 통화할 때 얼굴로 의도치 않게 터치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기능과 데이터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켤 수 있는 별도 버튼, FM 라디오 안테나 등을 탑재했다. 메모리(RAM)는 2GB, 저장 용량은 16GB다.

김성수 SK텔레콤 스마트 디바이스 본부장은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춘, 합리적인 가격의 스마트폰을 꾸준히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넷플릭스 '정주행 시청자' 4년새 20배 ↑

지난달 기준 500만명 이용

지난 4년간 콘텐츠 전환을 한 번에 몰아보는 이른바 '빈지워칭'(Binge-Watching)을 경험한 전세계 시청자가 20배 이상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는 전체 회원 가운데 몰아보기 경험이 있는 회원 약 840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7일 밝혔다.

넷플릭스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콘텐츠 시리즈 출시 이후 24시간 이내에 모든 에피소드 시청을 완료한 사람들을 '정주행 레이스'로 정의하고 이들의 시청 기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몰아보기 경험 시청자는 2013년 20만명에서 2016년 400만명으로 늘었다. 지난 9월 기준 몰아보기 경험이 있는 시청자는 500만명을 넘겼다.

전세계 넷플릭스 시청자들이 몰아보기를 가장 선호한 콘텐츠는 '킬모어 걸스:한해의 스케치'였다.

국가별로 몰아보기를 선호하는 콘텐츠는 달랐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몰아보기 콘텐츠는 '마블 디펜더스'가 차지했다.

가장 몰아보기 시청자가 많은 나라는 캐나다였으며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몰아보기 콘텐츠는 '트래일러 파크 보이즈'였다고 넷플릭스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